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운송료 30% 인상!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릎을 펴고 일어서자, 이 사회를 움직여 온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다.

파업 사흘 만에 전국 주요 거점의 물동량이 60퍼센트 가까이 떨어졌다. 부산 신항의 물량 반·출입은 “80~90퍼센트가 줄었”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 물량도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파업은 비조합원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동참도 끌어내고 있다.

‘불도저’라던 이명박 정부는 파업이틀 만에 “대화하자”며 꼬리를 내렸다. 관계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에서 “운전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심분 이해한다”고 눈치도 보고 있다.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끊겠다’거나 ‘면허를 정지하겠다’ 협박하는 것도 두려움의 반영이다.

진정, 이 나라 물류를 떠받쳐온 이는 누구였는가? 돈벌이에 눈이 멀어 우리에게 “적자 인생”을 강요해 온 재벌 운송·정유사들인가? 아니다! 월 평균 3백19시간을 피땀흘려 일해 온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떠드는 정부와 조중동의 비난은 더러운 사기다. 지금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것은 유로존 위기 때문이고, 유로존 위기는 유럽 지배



진정 누가 이 사회를 움직여 온 주인공인지가 드러나고 있다.

자들이 취해 온 긴축정책(노동자 피땀 쥐어짜기)의 실패를 보여 준다.

더구나 유로존 위기에 한국 경제가 쉽게 흔들리는 것도 노동자 때문이 아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삽질만 하다가 가계부채와 거품을 키우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꼬아터지도록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런 이명박 정부 아래서 글로벌스, 대한통운 등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반면, 우리는 졸린 눈 비벼가며 한 평 남짓 좁은 차 안에서 쪽

잠을 청하며 뼈빠지게 일해도 적자 인생을 면하지 못해 왔다.

적자 인생

따라서 운송료 인상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그동안의 물가 인상을, 실질 운임 삭감분 등을 고려하면, 운송료가 58퍼센트는 인상돼야 마땅하다. 30퍼센트 운송료 인상은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적자 인생으로 가는 끝없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제’적인 표준운임제도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더는 거짓말과 약속 어기기를 중단해야 한다.

운임의 58퍼센트를 기름값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도 대폭 인하하고 면세유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와 업체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물류를 멈추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더구나 이것은 단지 화물 노동자들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빼앗기고 짓밟혀 온 ‘99퍼센트’의 불만과 분노가 우리와 함께한다.

당장에 건설 노동자들이 힘을 받아 공동 투쟁을 선언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7월부터 시작될 금속노조 파업, 민주노총의 8월 정치파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노동계의 전면적인 실력 행사로 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99퍼센트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따라서 파업 대오를 굳건히 유지·확대하며 연대를 넓혀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2008년 촛불항쟁 때 ‘전국민 지지 파업 1호’를 기록

▶ 뒷면으로 계속

노동자의 딸이 보낸 편지

“파업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파업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아버지가 통장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곧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야. 아빠, 탑에 올라가서 농성할 거야. 괜찮지?”

‘이런 아버지라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 울겠다고, ‘아빠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에 겨우 2~3시간 자고, 휴게소 화장실에서 눈치를 보며 씻고, 그렇게 화물차를 운전하셨습니다.

짐을 싣다가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져 폐가 찢어졌는데도, 며칠을 참아가며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일해도 아버지의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1백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옷도 못 사줘서. 이런 한심한 아빠라 미안해.”



멀리 고공 농성 중인 아버지와 응원하는 딸 누가 이들을 생이별시켰는가

아버지의 당치도 않은 사과에 깊은 밤 잠 못 들고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자랑스러운 아버지’라는 글짓기로 상을 탔던 것이 기억납니다. 기뻐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에겐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모두가 믿음직한 넓은 어깨를 지니신, 자랑스러운 아버지

들이십니다.

더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 일로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찮으니깐, 하늘에 계신 엄마도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장의 딸 이진선

▶ 앞면에서 계속

하며 승리했던 영광을 되살려야 한다. 2003년에 항만 봉쇄와 도로 점거로 정부와 업체들을 KO시켰던 기억도 떠올려 보자.

우리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더 많이 알려내자. 운행율과 장치율

을 더 떨어뜨리자. 더 많은 비조합원들을 결집시키자. 물류의 동맥을 조이고 심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보여 주자. 더 많은 노동조합과 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달라고 호소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밀리면 칼 물고 엎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동료들과 함께 승리해서 당당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 1퍼센트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를 무릎꿇게 하고, 99퍼센트의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자.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들

전국철도노동조합

“벼랑 끝에 몰린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철도 대체수송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국토해양부는 비상대체수송 운운하며 철도 수송량을 확대 시킬 생각은 하지도 말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우리는 공항과 항만의 하역과 운송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이번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대체수송 거부는 물론, 그 어떠한 형태로의 추가 배차 행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밝히며,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조속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2009년까지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파업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

“화물노동자의 파업 투쟁은 생존의 한계점에서 폭발한 너무나 정당한 생존권 사수 투쟁이다.”

이 밖에도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전국비정규노동연대회의 등 수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해서 지지·연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지지 기사가 실린

레프트21 84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그 밖의 주요 기사

MB·검찰의 끝없는 비리와 은폐를 끝내야

아랍 혁명 시리아와 제국주의

한국 경제 대외적 악재와 국내적 모순의 융합

한미일 군사동맹 대중국 포위망과 재앙의 불씨

한국 정치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